

19년째 공사중...삼학도 복원 언제 끝나나

추가예산 284억 확보 어렵고 석탄부두, 화물부두 허가로 불법주차에 방진막 흉물 방치 국비 확보 등 특단의 대책 시급



삼학도 석탄부두 전경. 목포해수청이 화물부두로 허가해주면서 부두 주변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고 석탄 방진막이 철거 안 돼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19년째 진행 중인 삼학도 복원과 공인 조성사업이 2014년 이후 예산 확보가 안 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삼학도 석탄부두 이전으로 내년 이후 부두가 폐쇄될 예정이지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화물부두로 허가해줘 대형화물차의 불법 주차와 밤샘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석탄부두 방진막이 철거 안 돼 흉물스럽고 컨테이너들이 무분별하게 적재돼 주변 경관훼손은 물론 오가는 대형 화물차들로 비산먼지까지 발생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삼학도 복원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시작된 사업은 총 사업비 1399억(국비 487억, 지방비 912억)이 투입돼 오는 2021년 완공 예정이다.

지금까지 호안수로 2.1km, 산책로 4.2km, 교량 9개소, 배수로 3.7km, 배수갑문 2개소, 파크골프장, 중앙공원 무대 설치 4만2000주 수목 식재, 삼학도 주출입구 주

차장 조성 등 총 사업비의 80%인 1205억이 집행됐다.

하지만 삼학도 공원화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2014년 이후부터 예산 확보가 안 돼 기한 내 완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확보돼야 할 예산은 대략 284억원. 이 가운데 보상비가 118억원, 공사비는 165억원이다.

추가 소요될 공사비는 구체적으로 해변광장 조성 80억, 호안수로 100m와 광장대교 30억, 열린광장 조성 8억, 일우조선부지 주차장 조성 7억, 대흥수산부지 음악분수 광장 조성 40억 등이 남았다.

보상비는 대흥수산 47억과 성광조선 72억(2018년 감정평가 기준) 두 곳이다. 업체와 조율을 끝낸 후 순차적으로 장기분할 보상을겠다는 게 목포시의 입장이다.

이에 김귀선 목포시의원은 지난 22일 제 346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목포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적기에 예산반영이 어려운 만큼 해양수산부 국비사업을 유치해 전액 국비로 삼학도복원 공인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해양수산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제2차 수요조사에 삼학부두 친수 공간 조성사업을 신청해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의원은 "중 삼학도에 조성된 3개 산책로에서 바라보는 목포항 전망이 아주 뛰어나 이곳에 연중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꽃밭을 조성하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가 될 것"이라며 꽃길 조성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삼학도 복원 공원과 사업이 80% 공정에 달했지만 관광 인프라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목포는 항구도시이지만 등대가 없다. 내항관문인 삼학도에 여수오동도, 삼척, 목호 등과 같이 목포를 상징하는 등대 전망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중 삼학도에 꽃길 산책로와 등대전망대가 조성되면 목포 대표축제인 항구축제 때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화물부두는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돼 계약이 끝나는 대로 신뢰할 부두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수청에 적극 건의하고, 흉물로 방치된 석탄 방진막도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겠다"고 답변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해외연수 이후 사후 보고와 그동안 없었던 사후 심사를 의무화해 앞으로 투명하고 알찬 연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김근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목포시는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 계획에 지원방향, 재원확보 방향, 거리공연 시설화 방안, 장소 지정제도 운영 등을 담아야 한다.

김근재 의원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버스킹 존(공연 장소)'을 지정·운영하고,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앞으로 버스킹이 활성화돼 1000만 관광객 유치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미 의원은 "이번 조례는 셉템 심사배제가 가장 큰 특징이고 나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해외여행 시 환수할 수 있는

목포 대양산단 분양 숨통 트인다

지방채 800억 투입 미분양 용지 30만㎡ 매입키로

대양산단 조성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한 목포시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의회는 제 346회 임시회에 대양산단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대양산단 조성 이후 지금까지 목포시 등이 지급한 이자는 총 574억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언제까지 이자만 갚아나갈 것인가"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지방채 규모는 800억원. 이 중 공공자금이 500억원이고 민간 자금은 300억원이다.

앞서 목포시는 만기일을 2022년 4월 2일로 두 번째 연기하면서 당초 3.4%이던 이자율을 3.2%로 낮췄다.

이에 따라 지방채 800억 발행 때 이자 비용이 연간 9억8000만 원, 지방채 상환 시

까지 대략 48억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목포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낙찰차액 등 연간 50~60억에 달하는 순세계 잉여금을 적극 활용해 차근차근 갚아나간다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게 목포시의 입장이다.

김의숙 목포시 기업유치실장은 "지방채 800억원으로 분양이 아주 저조한 필지를 중점으로 매입할 계획"이라며 "매입 규모는 총 분양면적 대비 27.66%고 면적은 29만54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대양산단은 수산식품 특화산단을 지향해야 한다"며 "입주업체 종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가 밝힌 대양산단 금융 약정에 따르면 대출액 2720억원 가운데 920억(2016년 260억원, 2017년 350억원, 2018년 240억원)을 상환했고 대출 잔액으로 1800억원이 남아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가 지방채 800억원을 발행해 대양산단 전체 분양면적 대비 27.66%(면적 29만5470㎡)에 달하는 부지 매입에 나선다. <목포시 제공>

상수도 유수율 제고 위해 대대적 야간 누수탐사

목포시가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야간 누수탐사에 나선다. 목포시 상수도사업단은 25일 "유수율이 70%이하로 저조한 목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씩 모두 14회에 걸쳐 야간 누수 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수율이 저조한 목원동 일대 순천당 약국, 복교초교, 박이비인후과, 동초등학교 사거리, 은금배수지 인근이 중점 탐사 대상이다.

누수탐사는 차량통행 등 주위 소음이 없고 수압이 상승하는 심야시간대에 청음봉 등을 이용해 실시된다.

김형석 목포시 수도과장은 "누수발견 시 자체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사안이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 응급복구 업체에 의뢰해 즉시 복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수도사업단은 바닷물 수위가 4.9m 이상 상승하는 대조기(조위 상승)만 되면 문화예술회관 앞 제방도로가 해수에 침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하수과는 우선 사업비 1800만원을 들여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 침수방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차도선형 연안여객선 주기관

국내 첫 정비기술 향상 세미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26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국내 최초로 차도선형 연안 여객선 주기관 정비기술 향상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목포해수청, 여객선 주기관 정비회사인 한국엔지니어링과 (주)한진상사, 검사기관인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주기관의 운용, 정비표준, 검사내용 등을 발표한다. 사업자와 토목에서 정비사례를 공유하고 정비시스템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목포·완도지역은 여객선 72척의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으며 이 중 차도선이 61척이다. 주기관은 신형 전자제어식이 28척(56대)으로 45%를 차지한다.

한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초쾌속선 워터데크 추진기관 정비기술세미나를 열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목포시의원 해외연수 간간해진다

김수미 의원 국외출장 조례안 발의 김근재 의원 거리공연 지원 조례도

앞으로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간간해지고 길거리 공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버스킹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은 지방의원이 공무상 국외활동을 해야 할 경우 예외 없이 모두 사전심의하고 사후 보고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국외출장 45일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출장 30일 전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토록 했다.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었던 '셀프 심사' 소지를 사전에 없애고 심사결과를 3일 이내 목포시의회 인터



김수미 의원 김근재 의원

넷 누리 집에 공개하고 심사회록도 2주 이내에 공개토록 의무화 했다.

특히 귀국 이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의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 출장의 적정성을 심사받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정부안보다 강화된 자치법규리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수미 의원은 "이번 조례는 셉템 심사배제가 가장 큰 특징이고 나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해외여행 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해외연수 이후 사후 보고와 그동안 없었던 사후 심사를 의무화해 앞으로 투명하고 알찬 연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김근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목포시는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 계획에 지원방향, 재원확보 방향, 거리공연 시설화 방안, 장소 지정제도 운영 등을 담아야 한다.

김근재 의원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버스킹 존(공연 장소)'을 지정·운영하고,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앞으로 버스킹이 활성화돼 1000만 관광객 유치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